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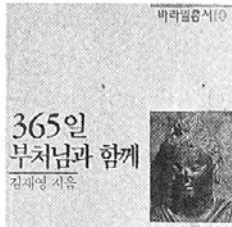
신행지침서 '365일 부처님과 함께' 등 불자다운 삶 이끄는 "등대"

경전구절 · 어록등 소개... 매일 부처님 말씀 되새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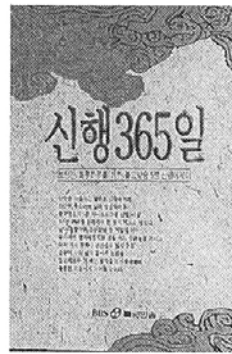
불자들의 생활은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행위이다. 생활이 곧 신행이며, 만나는 사람, 부딪치는 일이 모두 보살이며 선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이 생활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불자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이 있다. <365일 부처님과 함께> <신행 365일> <삼백육십오 번뇌> 등으로, 이들 책은 모두 매일 또는 특별한 날과 절기에 따라 그에 알맞은 경전구절 또는 조사들의 어록을 소개하고, 매일 매일의 올바른 생활자세와 마음가짐을 법문과 수상문으로 전달하고 있다.

<365일 부처님과 함께>(김재경, 불광출판부)는 법화경 아함경등의 경전 구절을 인용, 생활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매일을 희망 나눔 구도 등의 그림의 주제로 나눠 거기에 합당한 얘기를 풀어가고 있다. 불교방송에서 펴낸 <신행 365일>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시간에 탤런트 김용림씨의 잔잔한 목소리에 실려 방송된 원고를 책으로 엮은 신행에세이.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볼만한 주제들을 불교철학이나 경전 속의 일화를 곁들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음미해볼 수 있도록 꾸었다.



지관스님이 펴낸 <신행 365일>(동국경역원 펴냄)은 대장경과 역대조사의 어록 가운데서 365개항을 뽑아 신행생활을 돕는



사어록을 365개 항목으로 배열, 내용소개와 함께 해설을 덧붙였다. 1일 1책으로 삼을 수 있는 불교명언을 모아 매일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던져주고 있다.



이들 책은 경전구절의 생활화와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칫 딱딱하게 여겨지는 경전의 가르침을 쉬운 비유를 들어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시켜 올바른 삶의

◇ 매일 한가지 주제를 경전과 조사어록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어 신행지침서로 읽어볼만 하다.

존재·사유 심층 고찰
'선의 세계' 증보 발간



◇ 고형근 박사

원로 철학자 고형근 박사(학술원회원)가 최근 지난 71년 출간된 <선의 세계>에 '추사와 백파' '화엄신론 연구' 등 그 이후 발표한 논문들을 추가하여 전2권으로 증보판을 펴냈다.(운주사)

1권 '서양철학과 선'에서는 선과 하이데거의 존재론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3의 새로운 경지, 즉 존재와 사유의 일치라는 저자의 철학적 목표를 밝히고 있다. 2권 '한국의 선'은 '해동조계종의 연일 및 그 조류' '화엄신론연구' '추사의 선과 백파의 선' '추사의 선과 백파의 선'에 비평의 글을 보낸 내용에 대한 저자의 통렬한 논박이 관심을 모은다.

정성운 기자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소설 등신불	석용산	문학수첩
2	천수경	무비	불일
3	법타의 가르침	이기영	진흥원
4	선 100문100답	진제	파란나라
5	인식론·논리학	재귀자민외	불교시대사
6	깨달음의 길	거해	담마간다
7	방한암선사	김호성	민족사
8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	요림
9	알기쉬운 불교	전성부	불교방송
10	영가천후 법어	석성우	토방

구입문의: (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벽암록'

독서의 계절이다. 하늘 맑고 맑이 살리는 계절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한다. 그 가운데 한권의 책을 머리맡에 두고 일생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더할나위 없이 값진 삶일 것이다.

자 위미스님은 선판(禪板)을 가지고 오게 한다음 그 선판으로 용아스님을 잡았다. 얼마든지 때리는 것은 좋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가 튀어나올 리 없지 않나고 그 길로 바닷대를 메고 임제스님에게 찾아가 전과 같이 물었다. 그러자 임제스님은 용아스님의 물음에는 들은척도 하지 않고 좌선할 때 쓰는 원형의 좌포를 가져오게 하고서는 그 좌포로 또 때렸다. 용아스님은 얻어맞으면서, 때리

불교는 동양정신의 정수로서, 인류 최대의 큰 계보요, 문화적 가치를 무한히 간직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선은 영구히 가슴을 채워주는 우주의 진리라 할 수 있다. 보리달마를 통하여 중국에 전래하여 우리나라 및 일본에 전파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 사상 생활의 보폭에 이르기까지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김윤환 (부산 영광도서 대표)

벽암록은 설두스님이

선문답·逸事등 1백 공안 모아 풍자적 단평·비평적 주해 '눈길'

선적(禪的)내용 설화 일사(逸事)를 100문제로 모아 이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운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였고, 원오스님은 산문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는 것은 얼마든지 좋으나 때리는데서 조사서래의는 튀어나오지 않는다. 속히 조사서래의의 회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새로 나온 책.....

▲국역해심밀경(김정훈 역)=유식학의 근본경전인 해심밀경 권역본. 인간의 정신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8식사상과 유식학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책이다. 텍스트는 당나라 현장

법사의 한역본. (보림각, 3만5천원)
▲마하비바리밀경(이동형 역)=부처님과 문수보살이 직접 설한 마하비바리밀경 가운데서 분과 정공본 유통본을 우리말로 옮겼다. 반야부의 대표적 인 경전으로 실상반야를 밝히고 있다. (대흥기획, 3천원)

▲티벳 사자의 서(과드마삼 바바 지음)=티벳 최고의 경전으로 불리는 '티벳 사자의 서' 완역본. 사후세계를 경험한 다음 환생한 라마승들의 증언에 근거하여 사후의 영혼이 겪게 되는 여러 현상을 설명하고 해탈에 이르는 방법을 담고 있다. 류시화 옮김.

<장신세계사, 1만2천원>
▲이빛고(강창구 지음)=구도와 구법을 향한 정진의 과정에서 견지유린 '르스님' '봉암사'에 와서 등 28편의 시를 모은 구도시집. 불상과 사찰경경 등의 이미지 사진을 곁들였다. <도솔, 4천5백원>

마음이 열리면 천당도 보이지요

삶에 대한 성찰담은 서간문집
서울 삼보사 주지소임을 보면서 일선 포교현장을 일구고 있는 지관스님이 한때 설악산 신봉사에 머물며 '달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바이와 주고받은 편지글을 모은 서간문집.

사찰의 벽화이야기

벽화에 담긴 신앙적의미 살펴
사찰에 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찰의 벽화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증을 풀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리고 만다.

한국의 멋 맛 소리

전통문화 가치 쉽고 깊게 접근
우리의 전통문화란 무엇인가. 새삼스럽게까지 한 질문이지만 답변이 결코 수월치 않다. 전통문화를 글과 논리에 가두어 어렵게만 설명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열리면 天堂도 보이지요.

시인 윤지원 스님이 산문 밖 우바이에게 보내는 산사의 편지

情 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오랜 세월과 더불어 많은 사연을 동반하게 됩니다. 누구나 꼭진한 사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듯이. 구름을 벗고 산에 깃들여 사는 수행자에게도 닦아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情이란 것이 있지요

산문 밖 우바이로부터 거둬지는 서신을 받고 출가 승려로서 인간적 사랑과 그리움, 연민, 고독과 고뇌, 빈민, 원망,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추억, 깨달음, 현실과 영원 등을 묻고 진솔하게 답한 내용들이다. 산사의 끝 깊은 운치와 서정어린 문체로 아름답고 평안한 마음을 열어주는 지혜의 보고이다. 지금 전국 서점서 절찬리 판매 중!

신국판 / 300쪽 / 값 6,000원

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17-12
전화 : (02) 352-6406-7
팩스 : (02) 389-3262

도서출판 **삼보**
도서출판 윤주사
전화 : (02) 720-9372-3
팩스 : (02) 723-0646

고은장편소설

시가 죽으면 시인이 살아나고
시인이 죽으면 시가 살아난다.
대시인 고은 선생이 바라보는 파운(破韻)의 능시(弄詩),
김삿갓의 시 세계와 방랑

내가 가장 놀라워하는 것은 김삿갓의 방랑 자체이다.
방랑이란 그것의 실질은 낭만적이기보다
아주 힘든 노동으로서의 행위이다.
방랑정신야말로 사람들의 심성 안에 잠겨 있는
오랜 현실 탈출의 향수(嚮愁)인것이다.
방랑정신야말로 가장 어려운 무상성(無償性)의 구현이다.

-작가의 말' 중에서
①②③ 각권 값 6,500원

김삿갓 ①②③

플빛 서울서 서대문구 북이현3동 176-87 농안빌딩 3층
전화 363-6972, 363-5995 팩스 363-3858